

Seoul Arts Center

The Monthly Magazine of Seoul Arts Center-VOL. 209 2007년 1월호 별첨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예술의전당

캐나다 오페라 아틀리에 초청공연

악테온 & 디도와 에네아스

Acteon & Dido and Aeneas

2007 세계발레교향악 페스티벌 in Seoul



비초 콜레기움 재팬(Bach Collegium Japan, 마사카 시즈키)

21세기 음악의 트렌드

음악사회학적으로 볼 때 25년 전의 젊은이들은 그 당시의 현대음악 속에서 살았으며 미래가 있었다. 뉴 웨이브 또는 팝음악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상업음악 Industrial-Music 과 같은 장르는 그 당시의 흐름과 그 시대에 생존한 재즈의 거장들 또는 '새로운음악 Neuen Musik'의 범주 내에서 실존의 전위예술을 하는 젊은 반항적 기질의 예술가와 일치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다른 그룹들의 흐름과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었다. 적어도 동시대인의 한 초보 작곡가는 진정

한 의미의 '새로운 음악'으로의 선구자로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절제, 단순의 양식(예:Rühm), 새로운 혼합(예:Ferneyhough), 새로운 악기 개념의 구체음악(예:Lachenmann)으로 작곡하고 거기에 이 새로운 개념을 확장시켰다. 케이지, 펠트만, 노노 그리고 메시앙 등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작곡가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진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상징적 인물들이 되었다.



비초 콜레기움 재팬, 앙기론서트 시리즈



비오 콜레기을 지낸, 합창 & 성악 앙상블 보스톤 투어 중

결국에는 컴퓨터의 음향효과를 음악의 악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과 흥분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도전을 했고, 마침내 우리는 여기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컴퓨터의 음향효과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사용되며 그것이 충분한지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젊은 청중들, 그리고 음악 애호가 또는 작곡가들은 어떠한 음악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미래를 주시하는가?

팝음악(록, 테크노사운드, 힙합Hip-Hop도 포함해서)부터 찾아보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음악에 대한 본질을 과감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동시에 팝문화 시장과 소비 성향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제작자와 대형기업에 의한 시장의 조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반항하는 움직임으로 표출되는 힙합 그리고 테크노사운드가 이러한 의도에 의해 벌써부터 새로운 뜻의 해석이 붙어지고 완전히 동화되어버리거나, 오늘날의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는 문화에 맞춰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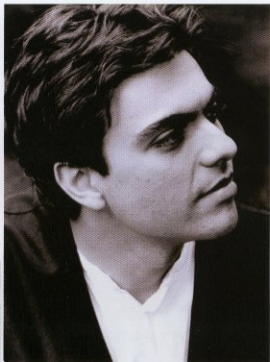
여기에 한국의 젊은 가수그룹들이 한국의 소비성향에 맞게 일상 생활에 관한 내용의 노래를 Techno-Beats에 맞춰 부른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독일-터키식의 Gangsta-Rapper와 같은 우스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Club-Kids들이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반나체로 종로거리



모리츠 에거르트, 「죽구 음악 프로그램」 중



모리츠 에거르트Moritz Eggert, (작곡가, 피아니스트)



에 나와서 Love 퍼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며 베를린의 Hip-Hopper들이 실계로 게토Getto에서 머물며 생활하거나 경단체 내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함께한 동질성이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나서 젊은이들을 강렬하게 충동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동질성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하고자 할 열정적인 움직임이 없으며, 과거 선배들의 증언이 줄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것을 구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힙합, 상업 또는 테크노사운드의 기본요소들이 응용되거나 장식되어서 판매 박은림 캄소로 옮겨졌거나 또는 스스로 상업적 캄 속으로의 흐름속으로 파 물혀 버렸다. 하지만 이중에도 팝음악의 세계가 저급한 것으로 여기거나, 클래식 음악의 장벽이 너무나 높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즈의 세계로 도피처를 찾는다. 실제로 재즈음악은 팝 그리고 클래식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때가 있었다.

그 사이 재즈의 마지막 자이언트인 존 콜트레인, 마일즈 데이비스등은 우리의 길을 떠났을 뿐 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향로에 있었던 예술가들 또한 죽었거나 고령이 되어서 박물관의 가구를 복원하는 것처럼, 과

거의 그들의 음악을 이어갈 새로운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아래서는 재즈와 이지리스닝의 차이를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훌륭한 재즈음악이 다시 한번 생긴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 이 되어 버린 것이다.

클래식에서는 어떤가?

여러 문화의 전통음악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전통음악을 다루는가?

안네 소피 무터Anne-Sophie Mutter가 2006년 모차르트에 대해 맞추어 두 가지의 모차르트 CD를 새롭게 내고 여기에 연주된 이 곡들을 전 세계의 무대에서 관객에게 들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럽의 문화인가? 반대로 한국의 문화가 나름대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이곡 저곡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들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 전통음악인가? 아시아인들은 유럽의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아시아의 콘서트홀에서는 주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며 대학에서는 대부분 서양 음악에 큰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 그리고 일본의 마츠 레기움 재팬Bach Collegium Japan을 들어보면 문화의 세계화



카뮈 케르거 Camille Karger

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전통 유럽의 음악이 유럽에서의 것보다 때로는 일본에서 더 좋게 연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질성에 대한 질문을 자주하게 된다. 어느 정도 까지 한국인이 서양 음악에 친숙해질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한국전통음악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누가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사이의 갈라진 틈에 다리를 놓겠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 보자. 누가 서양 것을 동양 것 과 같은 모양으로 기초를 다져 우리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하나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가?

현재의 클래식 예술음악 작곡가들에게는 팝음악의 제작자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짙은 작곡가를 감동시킬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짙은 작곡가는 그들의 부모, 전 세대의 것,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세계의 것들을 눈앞에서 보게되며, 작곡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동질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겨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문화와 양식의 다원주의'로 움직인다.

과거에는 예술형식 안에서의 의미있는 예술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어렵지는 않았다. 아직도 현 시대에서 이어지거나 미래로 향한 음악을 창조하는 것의 요구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고 이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일의 한 작곡가 모리츠 에게르트 Moritz Eggert, 그는 실제로도 열광적인 축구팬이며, 2006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에 여러 가지 축구와 관련된 음악프로젝트를 보여 주었으며, 뉘른베르크의 작곡가 카뮈 케르거 Camille Karger는 모차르트 탄생의 해에 모차르트의 모든 오페라에 나오는 배역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작곡했다.

이 작품들은 주제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단지 우리 시대에서만 연주 가능하며, 이 또한 모차르트의 오페라나 바흐의 「마태수난곡, 처럼 가볍게도 또는 멀게도 들려올 수 있다.

한스 노이엔펠스 Hans Neuenfels 같은 감독이 오페라 「이도메네오,의 제작을 위해 베를린의 도이치오페라극장에 각 종교주포세이든, 부처, 예수, 모하메드 등의 두상을 달아 두는 것이나, 또는 상당수의 '정치작곡가'처럼 최근의 이라크전쟁을 모티브로 작곡하는 것 또한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다. 결국에는 음악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므로써 우리를 감동시키며, 기쁘게 하며 전혀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야한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재 창조자와 같은 작곡가의 숙제이다. 확실히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엄격한 경계내 에서뿐 만이 아니라, 때로는 현대의 팝, 록, 재즈 등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옛부터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남게 될지에 관한 과제가 다시금 나타난다. 하나의 기적으로...

글 _ 다니엘 쥘 (작곡가 / 피아니스트, 독일 자르브뤼켄)



카뮈 케르거 Camille Karger 감독이 연출한 오페라 「갈라의 사라,



한스 노이엔펠스 감독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공연장면